

정동영 통일부 장관, 유럽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(2025.9.28.(일)~10.4.(토), 독일(베를린), 벨기에(브뤼셀))

— ‘제35회 독일 통일의 날’ 기념식 참석,
「2025 국제한반도포럼(GKF)」 독일 세미나 개최 등 —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8일(일)~10월 4일(토),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고 귀국한다.
 - 이번 순방에서 정 장관은 ‘제35회 독일 통일의 날’ 기념행사와 「2025 국제한반도포럼(GKF)」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고, 독일 및 EU측 주요 인사·전문가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.
 - 이를 통해 국제사회 통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럽지역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·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-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0월 3일(금)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개최된 ‘제35회 독일 통일의 날’ 기념식에 참석하여 독일측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소통했다.
 - 정 장관은 기념식 행사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,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,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의회·정부 인사를 만나 독일 통일 35주년을 축하하고, 우리 정부의 대북·통일 정책에 대한 독일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.
 - 특히 정 장관은 “과거 동서독이 ‘상호 인정’의 정책 전환을 토대로 양독 관계의 발전을 달성했던 사례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”고 언급하고,
 - “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,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, 적대적 두 국가론을 ‘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’으로 전환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통일부는 9월 30일(화) 베를린 자유대에서 ‘통일된 독일,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’를 주제로 「2025 국제한반도포럼(GKF)」 독일 세미나를 개최했다.
 - 정동영 장관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“동서독이 걸었던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‘평화적 두 국가’와 ‘교류, 관계 정상화, 비핵화’(END)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변화를 결단할 시점”이라고 강조했다.
 -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독일통일 이후의 독일 상황과 한반도에서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,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유럽의 교훈, 역할 및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.
- 정 장관은 출장기간 동안 독일과 벨기에에서 독일 정부와 의회, 유럽 연합 인사들 및 전문가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.
 - 독일에서 보도 라멜로 하원 부의장, 쿤터 자우터 연방총리실 외교안보 보좌관, 노베르트 람머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하고, 벨기에를 방문하여 EU 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(단장 : 세사르 루에나 의원), 올로프 스크 EU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을 면담했다.
 - 그리고,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·통일·민주 시민교육 관련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독일측 전문가들과 논의했다.
 - 정 장관은 “독일의 경험은 통일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,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포용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모범 사례”라고 평가하고,
 - “한국의 평화·통일·민주시민교육도 이러한 방향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 - 베를린 자유대를 방문하여서는 대북·통일정책에 대해 특강을 하고, 2030 독일 대학생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- 특강을 들은 대학생들은 독일 통일 사례와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질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o 또한,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아들 페터 브란트, 임상범 주독일 대사 등과 함께 베를린 외곽에 있는 브란트 전 총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.

□ 정 장관의 이번 독일·벨기에 방문은 우리 정부의 대북·통일정책에 대한 유럽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.

붙임 : 통일부 장관 유럽 출장 사진

담당 부서	통일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고원형 (02-2100-5820)
		담당자	서기관	최진용 (02-2100-5821)





<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>



<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>



<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>



< EU 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>



<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방문 >



<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묘소 참배 >